

茶山の 周易 해석에 대한 연구

임명진·강정수*

Study on Dasan's apprehension for I Ching

Myung-Jin Im, Jung-soo Kang

Dept. of Oriental Medical Physiology,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Daejeon Univ.

The medicine through I-Ching(The Book of Changes, 易經) is a field of the medical science, which studies physiology, pathology and Yin-Yang philosophy. From ancient times so many scholars have studied I Ching and they are divided into two different school. one is the school of Image and Number(象數學派), the other is the school of reason(義理學派).

Da-San Jung Yak-Yong(茶山 丁若鏞) is a distinguished scholar in the I-Ching study, and he had a unique opinion in the analysis about sentences of I Ching. He has done his best to make 'Image and Number(象數)' harmonize with reason(義理).

I Ching is the book about changes, which includes everything like natural phenomena, human body and mind. So we can understand human physiology and pathology through I Ching. But it's important to understand it was organized by symbols. The main symbols are Ba-Gua(八卦), 12 Bi-Gua(12辟卦), Zai-Ruo-zhi-Gua(再閏之卦), 50 Yan-Gua(50衍卦) and these symbols originated from the imagess of the four seasons. The image of 12 Bi-Gua(12辟卦) coincide with 12 jing-lao(經絡), the images of Zai-Ruo-zhi-Gua(再閏之卦) coinside with Ren-mai(任脈), Du-mai(督脈). 12 Bi-Gua(12辟卦) and Zai-Ruo-zhi-Gua(再閏之卦) are fundamental stuffs, on the other hand 50 Yan-Gua(50衍卦) is an application of every phenomenon.

Key words : The Book of Changes(易經), Image and Number(象數), Ba-Gua(八卦).

I. 緒 論

易의 형성은 일설에 의하면 복희씨가 팔괘를 짓고, 신농씨가 64괘를 만든 이후 三易이 있었다고 전해진다. 하나라의 連山易, 은나라의 歸藏易, 주나라의 周易이 그것인데, 각각 머리 괘를 달리삼아 각각의 역이 드러내려는 함의를 상징했다고 한

다). 하지만 실제 고증할 수 있는 것은 周代の 易인 『周易』뿐인데 전하는 바에 의하면 周文王이 유리에 8년 동안 갇혀 있을 때 백성을 근심하는 마음에 卦辭를 붙이고, 周公이 父子之親으로 文王의 학문을 계승하여 爻辭를 지었다고 한다. 이후 공자에 의해 象傳, 象傳, 繫辭傳등이 지어져 차차 十翼이 완성되었다고 전해진다. 이렇게 이뤄진 주역에 대해 수많은 학자들이 주석을 달고, 실제 생활에 응용하려는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 의학계에도

*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한방생리학교실
· 교신저자 : 강정수 · E-mail : omdkjs@dju.ac.kr
· 채택일 : 2004년 8월 4일.

1) 유창렬, 醫易學,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원전학교실, 2002, p. 7.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張景岳과 李梴을 비롯한 수많은 의가들이 의학의 근원이 易에 있음을 주장하였으며, 卦象을 이용하거나, 納甲, 納支²⁾를 사용하여 인체의 생리와 병리를 해석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이는 치료에도 응용되어 靈龜八法이나 飛登八法의 鍼法을 탄생시켰고, 최근에는 卦象의 배열에 방제나 病機이론등을 연결시켜 분류하는 작업도 이뤄지고 있다³⁾.

역은 흔히들 상수역과 의리역과의 두 학파가 있다고 하지만, 의학이라는 실용학문에 적용시키는 데는 언제나 상수역이 응용되어져 왔다. 象數學이란 우연의 세계인 '卦象'의 세계를 필연적이고, 數理적인 원리로 설명하려는 분야이다⁴⁾. 하지만 『易序』에 이르기를 '易이 책으로 이뤄짐에 있어서 卦爻와 象象의 뜻이 갖춰져 천지와 만물의 情狀이 드러난다'고 하였다⁵⁾. 즉, 상수와 의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다 같이 천지만물의 모습을 드러내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괘와 효가 나타내는 상수학적인 의미와 괘사와 효사가 표현하는 의리학적인 의미가 동시에 연구되어져야 함이 마땅하다.

이러한 시도를 행한 역학자로 茶山 丁若鏞⁶⁾이 대표적이다. 다산의 『周易四箋』에서는 納甲과 納支에 의한 해석을 배제하고, 오직 設卦傳을 근본으로 한 '物象論'과 先代의 卦變論을 발전시킨 '推移論', 여섯 개의 효 중 일부 효들만으로 괘를 만들어 새로운 상을 만들어 내는 '互體論', 한 卦 안에서의 변화를 강조한 '爻變論'. 이렇게 네 가지의 방법론을 기둥으로 해서 易辭를 해석해 나갔다. 이들 네 가지를 '易理四法'이라고 한다. 納갑과 納지는 卦爻의 다양한 변화를 해석할 수 있는 도구

로써 선대의 많은 역학자들에게 이용되었지만, 卦辭와 爻辭의 구성원리를 얻는 데는 부족함이 많고, 納갑과 納지가 나온 원리 자체도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다산의 역학체계는 번잡한 각종 이론보다도 괘상을 통해 천지만물의 情狀과 변화를 이해한다는 점에서 주역이 제작된 초기 정신에 비교적 가깝다고 사료된다.

이에 다산이 바라본 주역의 체계와 역사가 지어진 원리를 알아보고, 이를 인체의 장부와 경락 생리에 어떻게 적용시켜 볼 수 있는지 논해보고자 한다.

II. 本 論

1. 卦象과 易辭

주역은 크게 卦와 易辭로 이루어져 있다. 다산은 역사가 괘에 의거해 이뤄졌으므로 역사는 卦가 가진 象에 의하여 쓰여졌다고 하는 象一元論에 입각하고 있다⁷⁾. 이처럼 象을 근본으로 하여 易辭를 해석했지만 되지 않았을 때 그는 辭를 버리고 象을 찾으라고 하였다. "易辭를 버리고 그 象을 완미하면 二篇의 64卦 384爻가 모두 大義이다⁸⁾"라고 하여 易辭보다 더 훨씬 포괄적인 卦象을 통해 주역이 지어진 본 뜻을 알 수 있다고 한 것이다. 문제는 단편적인 卦爻辭로 어떻게 천지만물의 상황 변화에 대응하느냐는 것이었다. 다산은 성인이 萬象 가운데 어느 하나의 상을 뽑아 卦辭나 爻辭로 삼았다는 것을 '抽象'이라고 하였고, 학자들이 하나의 상에만 집착해서 변통을 알지 못할 것을 걱정하여 하나의 卦爻辭안에 여러 가지 일들을 섞어서 논했다고 보고 이를 일러 '該事'라고 하였다. 따라서, 주역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象을 먼저 이해하고, 그에 따라 易辭를 여러 가지 상을 종합하여 해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 것이다.

2. 주역 卦 구성의 원리

2) 十干 十二支를 卦와 효에 배속시킨 것

3) 『한방역의학적 임상요법』과 같은 책을 보면 육효의 각 자리를 병인, 병기, 병정으로 분류하여 64괘별로 방제를 배열하였고, 『중국팔괘의학』에서는 소성괘 팔괘에 맥상, 본초, 병증, 경락등을 배속하여 해설하였다.

4) 주역계사전 강의록 - 도을 김용욱

5) 아산학회편, 주역, 소강, 2002, p.13 "易之爲書 卦爻象象之義備而天地萬物之情 見"

6) 丁若鏞 [1762~1836] 조선 후기의 학자 · 문신. 호는 다산(茶山) · 삼미 · 여유당

7) 박주병, 周易反正, 서문당, 2002, p. 24.

8) 정약용, 『周易答客難·易學緒言 卷四』, 서울, 아람출판사, 1995, p. 473. "舍其詞而玩其象則二篇六十四卦三百八十四爻皆大義也"

1) 설지구괘(揲蓍求卦)

“易有太極 是生兩儀 兩儀生四象 四象生八卦 八卦定吉凶”

다산은 「繫辭傳」의 위 구절이 괘를 그어나가는 원리가 아니라 시초를 이용해서 괘를 구하는 과정을 표현한 것이라고 보았다. 즉, ‘太極’이란 64괘의 덩어리로, 아직 나누어지지 않은 50개의 시초를 말하며, ‘兩儀’란 천지를 상징하는 것으로, 50개의 시초 중에서 하나를 뺀 49개의 시초를 둘로 나누어 쥐는 과정을 의미한다. ‘四象’은 12辟卦를 四時에 분배한 것으로 天地水火와 같은데, 이것은 넷씩 세어서 놓는 과정을 말한다. ‘八卦’란 上卦 또는 下卦를 말하는 것으로, 단순히 하나의 小成卦가 길흉을 정한다는 것이 아니라 上下卦가 만나서 大成卦가 이루어진 후 비로소 길흉이 정해진다는 것이다.

2) 四時之卦(12辟卦)

12辟卦는 12월을 나타내는데 乾과 坤이 서로 進退消長하는 1년의 순환을 표시한다.

【표 1】 12벽괘의 월별 배속

子	丑	寅	卯	辰	巳	午	未	申	酉	戌	亥
復	臨	泰	大壯	夬	乾	姤	遯	否	觀	剝	坤

‘辟’이란 君이며, 主를 의미한다. 곧 모든 괘의 주인되는 괘라는 의미로, 다산은 추이법을 이용하여 이들이 군주괘가 되는 이유를 설명하였다. 추이법이란 한 괘 안에서 하나의 효가 자리를 이동하여 괘를 변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12벽괘 중에서 건곤괘는 효가 자리이동을 한다고 해서 다른 괘로 변화하지 않기 때문에 추이법상 母卦가 되지는 못한다.

3) 再閏之卦(五歲再閏)

넷씩 셈한 후에 나머지를 손가락 사이에 끼워 윤달을 상징한다고 했는데 윤달은 오년에 두 번이 오므로 五歲再閏이라고 한다. 다산은 자연변화의 근본원리가 四時에서 나온다고 보았기 때문에 12

벽괘를 기본괘로 보고 나머지괘들이 이에 衍해서 나온다고 하였다. 하지만 12벽괘를 12월에 배치하여 四時의 運行을 설명하려고 할 때 필연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것이 윤달이다. 다산은 여기에 착안하여 괘를 구하는 과정에서 뿐만 아니라 실제 괘상에도 이러한 것이 반영되었다고 보았는데 그것이 바로 ‘雷山小過卦’와 ‘風澤中孚卦’이다. 이들은 비록 12벽괘와 모양이 틀리지만 들끼리 서로 모여 모양이 단정하고, 小過卦는 크게 보아 坎의 象을, 中孚卦는 離의 象을 취하고 있다 보았다. 坎과 離는 卦形이 中正해서 여타 팔괘와 달리 진퇴 소장하는 四時의 상을 나타내지 않는다. 따라서 坎과 離의 象을 뿌리로 하는 小過卦와 中孚卦는 四時의 차례가 아닌 五歲再閏에 배당되고, 추이법 상에 있어서는 二陰二陽卦의 母卦가 된다. 벽괘의 기본성질인 四時의 象과 他卦를 낳는 母卦로서의 자질이 있기 때문에 小過卦와 中孚卦는 벽괘의 부류에 들어가 14벽괘가 되었다.

4) 50衍卦(大衍之數 五十)

대연지수에 대해서는 하도의 수 55에서 5를 뺀 것과 낙서의 수 45에서 5를 더한 것을 대연지수로 보는 관점이 있는데, 다산은 이것을 터무니없는 설로 보았다. 다산은 철저히 주역내부의 논리와 근거를 좇아 대연지수 50이란 四時를 의미하는 12 벽괘에서 衍해 나온 50개의 괘로 보았다.

그의 추이법에 의하면 변화의 근원인 四時를 12 벽괘가 상징하고, 이 12벽괘에서 하나의 효가 자리를 이동하여 50개의 연괘를 만든다는 것이다.

3. 易理四法

1) 추이론

추이론은 하나의 효만이 이동하여 변화되는 괘를 살피는 것이므로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가 있다.

【표 2】 추이법에 의한 벽괘와 연괘의 분류

一陽之卦		一陰之卦		二陽之卦		二陰之卦		三陽之卦	三陰之卦
復	剝	姤	夬	觀	臨	大壯	遯	泰	否
				少過		中孚			
師	謙	同人	小畜	萃	升	大畜	无妄	井	益
豫	比	小畜	履	蹇	解	睽	睽	恒	噬
		大有	大有	坎	坎	睽	家人	豐	嗑
				屯	晉	需	革	濟	隨
				震	蒙	兌	訟	貴	渙
				蒙	頤	革	巽	歸	未
				頤	夷	大過	節	妹	濟
				屯	屯	大過	損	損	漸
									咸

※ 굵은 글씨로 표시된 괘는 觀, 臨卦 / 大壯, 遯卦에서 추이된 것임.

즉, 乾坤을 제외한 12벽괘가 母卦가 되고, 三陰, 三陽之卦를 제외한 나머지 괘들은 모두 2개의 母卦를 가지게 된다. 復卦의 初九가 二爻로 추이되면 地水師卦가 되고, 三爻로 추이되면 地山謙卦, 四爻로 추이되면 雷地豫卦, 五爻로 추이되면 水地比卦가 되는 것이다. 剝卦의 上九가 五爻로 추이되면 水地比卦가, 四爻로 추이되면 雷地豫卦가, 三爻로 추이되면 地山謙卦가, 다시 二爻로 추이되면 地水師卦가 되듯이 師, 謙, 豫, 比의 네 괘는 復卦와 剝卦 모두에서 추이되어 나온 괘들인 것이다.

다산은 이러한 推移의 법칙이 단순히 주역이 탄생한 이래로 우연히 발견된 질서중의 하나가 아니라 복희 획괘 당시의 원리라고 말한다. 뿐만 아니라 괘효사 또한 이러한 추이의 원리에 의해 지어졌다고 하였다.

위의 표에서 주의할 점은 二陰, 二陽之卦는 再閏之卦인 小過卦와 中孚卦의 추이를 받는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二陽之卦는 ① 觀卦와 臨卦에서 추이된 괘 ② 觀卦와 小過卦에서 추이된 괘 ③ 臨卦와 小過卦에서 추이된 괘,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존재하게 된다. 觀卦와 臨卦에서 추이된 괘가 굵은 글씨의 坎, 蒙, 頤, 屯卦 이다. 觀卦와 小過卦에서 추이된 괘는 萃, 蹇, 震, 艮卦이고, 臨卦와 小過卦에서 추이된 괘는 升, 解, 晉, 明夷卦이다. 이것은 二陰之卦에서도 마찬가지이다.

2) 호체론

다산은 호체에 있어서 다양한 방법을 전개했는데 그는 호체를 이렇게 정의하였다.

“호체란 무엇인가? 重卦가 이루어지면 여섯 체가 서로 이어져있는데 二爻에서 四爻까지와 三爻에서 五爻까지가 각각 하나의 괘를 이룬다. 이것을 互體라고 한다9).”

비록 重卦가 상하괘의 만남으로 이루어졌지만 初爻부터 시작한다는 관념에서 벗어나면 여러 개의 괘상을 찾아낼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下震上坎의 水雷屯卦는 중간에 2호에서 4호까지, 즉, 下互體는 坤이고, 3호에서 5호까지의 上互體는 艮이다. 兩互體로 作卦하면 山地剝卦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호체의 이론적 근거에 대해서 다산은 계사전의 문장에서 찾고 있다.

“만약 물을 섞고 덕을 갖추며 옳고 그름을 변별함에는 그 中爻가 아니면 다 할 수 없다10).”

여기서 中爻란 2, 3, 4, 5호를 말하는데11), 이들에 의해 생기는 호체를 통해야만 卦爻辭의 정확한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다산은 기존의 호체설을 확충하여 다양한 호체이론을 내놓았는데, 이는 계사전의 ‘中爻’를 단순히 2, 3, 4, 5호만으로 본 것이 아니라 初爻부터 上爻까지 모든 호들로 보았기 때문에 가능했다. 다양한 호체 이론은 다음과 같다.

(1) 大體

대체란 호체의 큰 형태이다. 예를 들면 坎은 陰이 상하로 막고, 가운데에 陽爻가 있는 형상이나 가운데의 陽爻가 둘이나 셋이 있어도 크게 보면 坎의 象이라는 것이다. 예로 雷風恒卦를 보면 初爻부터 五爻까지의 상이 크게 坎의 상이 된다. 같은 성질의 효가 겹치려면 질적으로 같다고 보는

9) 정약용, 周易四箋 卷一, 민창문화사, 1995, p. 6. “互體者 何也 重卦 既作六體 相連 自二至四自三至五 各成一卦 此之謂互體也”

10) 주역·繫辭傳 下 9장, p. 278. “若夫雜物撰德辨是與非 則非其中爻不備”

11) 호체를 인정하지 않는 왕필역학의 입장에서는 단지 2호와 5호만이 中爻라고 주장한다.

것이다. 다산은 역에 두 가지 관점이 있다고 하여 12辟卦는 '類聚'에, 50衍卦는 '羣分'에 배당시키고는 이렇게 말하였다.

“12辟卦는 그 모인 것이기 때문에 그 본체 속에는 모두가 乾坤이 있고(坎離는 없다), 50衍卦는 그 나뉜 것이기 때문에 그 본체 속에는 모두 坎離가 깃들어 있다(坎離가 없는 것은 한 괘도 없다.)¹²⁾.”

(2) 兼體

겸체는 하나의 괘 전체를 3등분하여 두 효씩 짝지어 보는 것으로 겸체는 벽괘에서 만들어진다. 乾, 坤, 臨, 大壯, 遯, 觀, 中孚, 少過의 8괘만이 겸체가 만들어지는데 臨卦는 震의 大體이고, 大壯卦는 中澤兌의 大體이다. 실제 卦爻辭 해석에서 보면 다음과 같다. “大壯의 爻辭에 순전히 羊의 象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大壯이 兌의 大體이고, 兌는 羊이기 때문이라는 것이고, 觀이 門闕인 것은 艮이 門闕이기 때문인데(說卦傳) 觀은 艮의 大體이다¹³⁾.” 兼體는 곧 大體의 일부라고 볼 수 있다.

(3) 倒體

도체는 상하의 본체나 호체를 뒤집어 봐서 파악하는 괘상이다. 다산은 三易이 있다고 하여 첫째 交易, 둘째는 變易, 셋째는 反易이라고 하였다¹⁴⁾. 交易은 上下卦가 교환된 것이고, 六位가 모두 변한 것은 變易이며, 卦體를 뒤집어 보는 것이 反易이다. 倒體는 이 중 反易으로 보았을 때 변화가 없는 괘인 坎, 離, 大過, 頤, 小過, 中孚를 관찰하기 위해 쓰인 방법이다. 다산은 “雜卦傳에 이르기를 大過는 뒤집는 것이라고 했고, 爻辭에 다시 頤頤를 말하고 있는바, 이는 성인이 倒象을 취한 명백한 증거이다¹⁵⁾.” 라고 하면서 이것이 卦爻辭에

쓰인 증거를 大過卦와 頤卦를 들어 설명하였다.

(4) 伏體

다산은 天地水火가 易의 四柱라고 하여 天地는 卦德을, 水火는 卦數를 표현하는 기틀로 보았다. 卦德이라 함은 剛割은 乾에서, 柔割은 坤에서 나왔다는 뜻이고, 卦數는 1효에서 6효까지의 수를 말하는 것으로 이것이 坎離가 접거한 자리라는 것이다. 즉 64괘의 그 하괘는 모두 離(一奇二偶三奇)이고, 그 상괘는 모두 坎(四偶五奇六偶)이다. 이렇게 보면 坎離의 상이 모든 괘의 배후에 항상 숨어 있다는 것이 된다. 또한 離는 해이고, 坎은 달의 象이므로 하괘는 낮이 되고, 상괘는 밤이 된다고 볼 수 있다.

(5) 辟合

반합이란 반쪽이 서로 합쳐 하나가 된다는 뜻인데 이것은 卦爻辭 곳곳에서 보이는 婚媾의 상을 해석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雷澤歸妹의 경우 상괘의 震을 倒艮으로 보고, 하괘의 兌는 주인 자리를 차지한 소녀로 보아 艮과 兌가 반합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6) 兩互作卦

상하의 互卦로 하나의 大成卦를 만드는 것인데 風雷益卦의 上互卦는 艮, 下互卦는 坤卦이다. 따라서 益卦의 兩互作卦는 剝卦인 것이다.

이처럼 괘를 다각도로 관찰해서 호체를 파악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易辭의 해석을 위한 物象을 찾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

3) 物象論

다산의 물상에 대한 정의를 보면 다음과 같다.

“물상이란 무엇인가. 「說卦傳」의 乾馬, 坤牛, 坎豕, 離雉 등의 분류가 이것이다. 文王과 周公이 易辭를 순서 세워 찬술할 때 그 一字一文을 모두 물상에서 취하였으니 「說卦傳」을 버리고 역을 이해하고자 하는 것은 六律을 버려두고서 음악을 제정하려고 하는 것과도 같은 것이다. 이를 일러 物象이라고 한다¹⁶⁾.”

12) 정약용, 주역사전 권일, p. 26. “(仲氏曰) 易有二觀 一曰類聚 二曰羣分 十二辟卦其聚者也 故其本體之內皆有乾坤(無坎離) 五十衍卦其分者也 故其本體之內皆有坎離(無一卦無坎離者)”
 13) 주역사전 卷一, p. 27. “觀者門闕也 艮爲門闕 觀其非艮乎 兌者羊也 大壯爻詞純用羊象 大壯非兌乎”
 14) 주역사전 卷十一, p. 473. “推移正義之外尙有三易 一曰交易 二曰變易 三曰反易”
 15) 주역사전 卷一, p. 28. “雜卦傳曰 大過頤也 頤之爻詞再言頤頤 此聖人取倒體之明驗也”

다산은 주역의 해석방법으로 채택한 물상론이 근본적으로 「說卦傳」을 근본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다산은 「說卦傳」이 공자의 저작이라고 하는 설을 비판하면서 팔괘가 그려질 때 함께 지어졌다고 주장하였다.

“팔괘가 처음 그려졌을 때 「說卦傳」도 함께 일어났다. 先儒들이 「說卦傳」은 공자의 소작이라고 하는데 깊고도 세밀히 연구하지 않은 논의이다. 물상을 취하지 않는다면 팔괘는 처음부터 만들 필요조차 없었을 것이다.(단지 궤만으로는 쓸모가 없다.) 「說卦傳」이란 것은 복희씨가 처음 궤를 그릴 때 우러러 天文을 관찰하고(坎, 離는 달과 해가 된다.) 구부러 地理를 살피며(艮, 兌는 산과 못이 된다.) 멀리는 여러 사물에서 취하고(乾, 坤은 말과 소가 된다.) 가까이로는 몸에서 취하여(艮과 震은 손과 발이 된다.) 그것들의 象을 완미하고 命名함으로써 神明과 결합하게 된 것인데, 어찌 공자를 기다릴 것인가¹⁷⁾”.

즉, 說卦의 物象은 궤와 뿔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라는 것인데, 다산은 이외에도 「說卦傳」에는 없으나 易辭에서 그 예를 징험할 수 있는 것, 「春秋左氏傳」, 「國語」에서 卜史가 논한 卦德, 漢代 荀九家가 말한 物象들, 互二卦를 겹쳐서 물상을 취한 易辭등을 토대로 물상론을 더욱 확충시켰다¹⁸⁾.

추이, 호체, 효변의 이론이 궤가 지어지고, 존재하는 원리에 관한 것이라면 물상론은 이러한 역체계를 실상에 응용하는 관건이 되므로 의학적 응용에 있어서도 중요한 대목이다.

추이와 호체, 물상론을 사용하여 易辭를 해석한

16) 주역사전 卷一, 括例表, p. 6. “物象者何也 說卦傳所云乾馬坤牛坎豕離雉之類是也 文王周公之撰次易辭 其一字一畫皆取物象 舍說卦而求解易 猶舍六律而求制樂 此之謂物象也”

17) 주역사전 卷一·說卦表直說, p. 19. “八卦始劃之初 說卦並與 先儒謂說卦爲孔子所作 非深密體究之論也 不取物象 則八卦元不必作 (徒卦無所用) 說卦者 庖犧畫卦之初 仰觀天文(坎離爲日月) 類察地理 (艮兌爲山澤) 遠取諸物(乾坤爲馬牛) 近取諸身(艮震爲手足)玩其象而命之名以與神明約契者也 而俟孔子哉”

18) 김인철, 다산의 주역해석체계, 경인문화사, 2003, p. 41.

에로 風天小畜卦를 살펴보기로 한다.

小畜卦의 卦辭를 보면 ‘小畜卦는 형통하니 구름만 잔뜩 끼고 비가 내리지 않음은 나의 서쪽 교외로부터 왔기 때문이다.’ (小畜, 亨, 密雲不雨, 自我西郊)라고 하였다. 한 구절씩 보면

① 小畜卦가 왜 형통한가? 다산은 小畜卦가 一陰之卦로써 天風姤와 澤天夬 두 궤에서 유래되었다고 보고, 姤卦의 初爻가 四爻로 올라가서 여전히 서로 융합이 있고, 柔劃이 陰의 자리에 있으니 자기자리를 얻었다고 보았다. 뿐만 아니라 互卦로서도 離卦를 형성하니 그 점이 형통하다고 본 것이다.

② 한편 夬卦에서 온 과정을 보면 上卦의 兌卦가 坎卦의 형상과 비교했을 때 아래가 막힌 상이므로 비가 되어 내리지 못했다. 하지만 上爻가 四爻로 내려오므로써 아래가 비로소 뚫렸으나 위가 다시 막혀 여전히 비를 이루지 못한 상이 된다. 이러한 상을 다산은 구름만 잔뜩 끼고 비가 내리지 않은 상으로 본 것이다. 卦傳의 물상과 순구가, 다산이 보입한 물상¹⁹⁾은 【표 3】과 같다.

③ 그렇다면 ‘自我西郊’는 무엇인가? 이는 姤에서 온 小畜卦가 손으로 결제하여 위로 乾天에 제사드리는 상이기 때문에 교외의 상이 되었는데, 예부터 제천행사는 반드시 교외에서 행했다고 한다. 그것이 서쪽인 이유는 小畜卦가 夬卦에서도 유래하였는데 上卦인 兌 西方의 上爻가 추이되어 四爻로 갔기 때문이다. 즉, 姤卦와 夬卦에서 서쪽과 교외의 상을 얻은 것이다. 이와 같이 추이, 호체, 물상론을 이용하여 小畜卦의 象辭를 해석했는데, 다산은 이러한 원리가 卦辭, 象傳, 象傳이 지어진 주요원리로 보았다.

4) 爻變論

효변은 한 궤 안에서 획이 변화하는 양상을 강조한 법칙으로 해당 효가 陽劃이면 陰劃으로, 陰劃이면 陽劃으로 바뀌놓고 음미하라는 것이 그 핵심내용이다²⁰⁾. 먼저 효에 대해 다산은 이렇게 설

19) 김인철, 다산의 주역해석체계, 경인문화사, 2003, pp. 39-42.

【표 3】說卦傳의 물상과 순구가, 다산이 보입한 물상

	乾	坤	震	巽	坎	離	艮	兌
說卦傳	곤셈, 말, 머리, 아버지, 하늘, 둥글, 임금, 옥, 금, 추위, 얼음, 매우 붉은 색, 좋은 말, 늙은 말, 아원 말, 얼룩말, 나무열매	유순함, 소, 배, 어머니, 땅, 배, 술, 인색함, 균등함, 새끼 딸린 어미 소, 큰 수레, 무늬, 무리, 손잡이, (땅에 있어서는) 검은색	움직임, 용 발, 맏아들, 우뢰, 검고 누런색, 꽃, 큰 길, 결단함과 움직임, 푸르고 어린 대나무, 잘 우는 말, 왼쪽, 뒷발이 흰말, 두발을 함께 드는 말, 머리가 흰말, (농사에서) 다시 싹틈	들어감, 닭, 넓적다리, 만달, 나무 바람, 백공, 먹줄같이 곧음, 긴 것, 결백함, 높음, 진퇴, 과단성이 없음, 냄새, 머리털이 적은 사람, 이마가 넓은 사람, 눈에 회자위가 많은 사람, 이익을 가까이 하여 3배를 얻음	빠짐, 돼지, 귀, 가운데 아들, 물, 도랑 엮드려 숨음, 흰 것을 바로 잡음, 활과 바퀴, 근심이 있는 사람, 마음의 병이 있는 사람, 꺾병이 있는 사람, 피를 상징하는 괘, 붉음, 등이 아름다운 말, 성질이 차분한 말, 머리를 떨군 말, 말굽이 얇은 말, 끄는 말, 고장이 잦은 수레, 통함, 달, 도적, 단단하고 심이 많은 나무	걸림, 꿩, 눈, 가운데 딸, 불, 해, 번개, 갑옷과 투구, 창과 병기, 큰 배(임신), 건조함을 상징하는 괘, 자라, 게, 소라, 조개, 거북이, 가지 끝이 마른 나무	그침, 개, 손, 막내 아들, 산, 오솔길, 작은 돌, 문, 나무열매와 풀열매, 문지기, 손가락, 쥐, 끌어당김, 주둥이가 검은 짐승, 단단하고 마디가 많은 나무	기빠함, 양, 입, 막내딸, 연못, 무당, 허, 무너져 꺾임, 붙었던 것이 떨어짐, 갯벌, 첩
荀九家	상의(衣), 덕 (곧은마음), 사람, 채움, 큰수레, 베품	하의(裳), 비단, 누런색, 고을, 신하와 백성, 나라, 빔, 더위	질그릇, 제후, 주인, 감(行)	버드나무, 갯버드나무, 흰띠풀, 싹, 교령, 울부짖음, 명령, 물고기	궁(宮), 법률, 뜻, 술, 의심함, 여우	날카로운 나무, 도끼, 여름, 나는 새, 암소	귀신, 어두움, 성(城), 종묘, 코, 꼬리, 하인, 요구함	
茶山	서북쪽, 화살, 계단, 성밖(郊), 들, 친족, 손님, 야원, 부유함, 흰색, 띠풀, 성냄	서남쪽, 사냥, 벗, 쌍조개, 살갓, 따듯함, 단맛, 욕심	정동쪽, 봄, 어짐, 초목, 배와 수레, 주머니, 구기(斗), 기(旗), 수염, 대그릇, 대광주리, 천자, 행인, 노인, 군자, 스승, 장수, 왼쪽, 섬(立), 단음, 머리,	동남쪽, 약, 실음, 엮드려 숨음, 베품, 주인, 소, 벌레	정북쪽, 겨울, 돌, 띠, 밭(사냥), 은택, (새에 있어서는) 날개, 경(敬), 지혜, 머뭇, 어지러움, 들보, 사슴, 등	정남쪽, 예(禮), 담(壙), 감옥, 막음, 쓴맛, 다스림, 성실함, 너그러움, 나눔, 아름다움, 기쁨, 사관, 미더움, 무인, 얼굴, 가족	동북쪽, 고을, 침상, 오두막집 또는 숙소, 흙, 길을 잃어 헤맬, 경계, 물러남, 아이, 소인	정서쪽, 가을, 의로움, 금, 음식, 소매, 은둔자, 오른쪽, 어두움, 위태로움, 호랑이

명하였다.

“爻란 變이다. 변하지 않으면 효가 아니다. 괘의 1, 2, 3, 4를 劃(또한 位)이라 하고, 그 1, 2, 3, 4가 변한 것을 爻라고 한다. 爻라는 것은 爻로서, 음양

이 交易함을 말한다. 지금 사람들은 劃을 爻로 알고 있으니, 시작부터가 이미 틀렸다. 筮法에서 老陽의 획은 口이고(重이라 이른다.), 老陰의 획은 乂(交라 이른다.)이다. 乂는 爻이다. 乂를 거듭하면 爻가 된다. 爻字가 처음 만들어질 때에는 원래 陰陽交易의 뜻을 주로 하였는데, 도리어 不變을 爻로 여기니 옳겠는가21)?”

20) 김인철, 다산의 주역해석체계, 경인문화사, 2003, p. 80.

변하는 것만이 효이고, 변하지 않은 것, 예를 들어 八卦중 艮卦를 본다면 하나하나의 획은 그저 획이지 효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러한 효변의 원리를 다산은 撰蓍求卦하는 과정에서 찾아내었다.

“九라는 것은 老陽이고, 六이라는 것은 老陰이다. 老는 변하지 않음이 없기 때문에, 九六이라는 것은 이미 변한 것에 대한 명칭이다. 불변이면 九六이 아니다. 筮法에서 세 번 거는 것이 모두 天數(1, 3, 5, 7, 9)이면 그 수는 九가 되고, 세 번 거는 것이 모두 地數(2, 4, 6, 8, 10)이면 그 수는 六이 된다. 이것이 老가 되는 까닭이다. 天地之間에는 一刻이라도 陰이 없을 수 없고, 一刻이라도 陽이 없을 수 없다. 그러므로 純陽이면 바로 변해 陰이 되고, 純陰이면 바로 변해 陽이 된다. 初九라고 말하는 것은 初劃이 動하여 陰이 된 것을 말하고, 初六이라고 말하는 것은 初劃이 動하여 陽이 된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周公이 撰辭하던 초기에 이미 변한 체를 미루어 그 물상을 사용했으니 爻變을 알지 못하면 周公의 辭를 읽을 수가 없다.”²²⁾

즉, 주역에 나오는 모든 爻辭들은 각 효가 변하였을 때를 말하며, 이들의 爻辭 또한 變卦의 물상을 사용하여 지어졌다고 보았다. 따라서 乾卦 九五의 爻辭 ‘飛龍在天 利見大人’은 乾之大有卦의 물상과 관련되었다는 것이다. 물론 之卦의 象과 本卦의 象뿐만 아니라 推移, 互體등도 모두 살펴야 한다고 하였다²³⁾.

21) 周易四箋 卷一 “爻者變也 不變非爻也 卦畫之一二三四謂之畫(亦位也) 其一二三四之變者 謂之爻 爻者交也 謂陰陽交易也 今人認畫爲爻 頭腦已誤也 筮法老陽其畫爲口(謂之重) 老陰其畫爲又(謂之交) 又者交也 重又則爲爻也 爻字初作之時 原主陰陽交易之義而反以不變者爲爻可乎”

22) 周易四箋 卷一 “九者老陽也 六者老陰也 老無不變則九六者既變之名 不變非九六也 筮法三掛皆得天數(一三五七九)則其數爲九 三掛皆得地數(二四六八十)則其數爲六 此其所以爲老也 天地之間不可一刻而無陰亦不可一刻而無陽故 純陽則直變爲陰純陰則直變爲陽 其曰初九者謂初畫動而爲陰也 其曰初六者謂初畫動而爲陽也 則周公撰詞之初原主既變之體而用其物象不知 爻變則不可以讀周公之詞也”

23) 『周易四箋·계사하전』 “효사에 이르러서는 12辟卦의 추이의 상을 근본으로 하고 본 효의 변한 상을 아우르면서 물상을 뒤섞어 글을 이룬 것이다(至於爻詞

실제 효변론을 채용해 효사를 해석한 예로 乾卦 九五爻辭인 ‘나는 용이 하늘에 있음이니 대인을 봄에 마땅하다’(九五, 飛龍在天, 利見大人)의 구절을 보기로 한다.

① 먼저 九五라는 것은 五劃이 爻變한 것을 말하며 이것은 곧 乾卦가 大有卦로 변하였다는 뜻이다.

② 그렇다면 왜 ‘나는 용’인가. 다산은 乾卦의 모든 陽爻가 추이법에 의해 復卦의 一陽 震에서 출발하였다고 보았다. 따라서 용의 상을 가지게 되었고, 이것이 변하여 離가 되니 離의 나는 상²⁴⁾을 얻어 ‘나는 용’이 된 것이다.

③ 나는 용이 하늘에 있는 이유는 五, 六爻가 하늘의 자리이기 때문이다.

④ 大人을 봄에 마땅하다는 것에서 大人은 聖君을 말하는데 上卦의 乾이 곧 大人인 것이다. 下卦의 乾은 聖人이라고 한다. 上卦가 離로 변하여 離에서 서로 봄에, 바르고도 예의가 있으니 大人을 봄에 마땅하다고 하였다. 九二도 마찬가지로 변하여 離가 되는 까닭에 ‘봄에 이롭다’는 爻辭가 지어진 것이다.

이처럼 다산은 周易四法을 이용하여 易辭를 해석함에 있어서 실질적인 상을 우선시하였다. 또한, 64괘 전체를 벽괘와 연괘의 유기적 관계로 구성함으로써 자연의 상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해석할 수 있게 하였는데, 인체의 장부, 경락을 폐상과 유기적으로 연결시키는 작업을 통해 역학을 의학적으로 응용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론으로 삼을 수 있겠다.

III. 結 論

역학의 의학적 응용을 살피기 이전에 먼저 해결되어야 하는 것이 주역자체를 어떠한 관점에서 볼 것 인가 이다. 본 고에서는 19세기에 살면서 선대의 역학사를 토대로 독특한 견해를 펼쳤던 다산 정약용의 역학해석체계를 살펴보았다.

則本之以十二辟卦推移之象, 兼之以本爻所變之象以雜物成文.”

24) 荀九家에 의해 밝혀진 상이다.

역학의 의학적 응용에 있어서 남갑이나 남지에 의한 해석이 주류를 이룬 데 반하여 실제 괘효사를 해석하여 의학적인 설명에 이른 경우는 별로 없는 것이 사실이다.

다산 정약용의 『周易四箋』에서 풀이한 괘효사의 의미를 생리, 병리에 응용해 봄으로써 역학의 의학적 응용에 있어서 새로운 방법론을 제시하려고 하였다. 이상의 작업을 통해 다음과 같은 지견을 얻었다.

1. 주역의 괘, 효사는 괘와 효의 변화 속에서 생기는 상을 토대로 천문, 인사, 지리의 다양한 상황을 묘사한 것으로, 이러한 구성의 핵심은 12辟卦, 再閏之卦, 50衍卦의 구조이다.

2. 『周易四箋』에서는 추이, 물상, 호체, 효변의 역리사법에 의해서 易辭가 지어졌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괘효사에서 보이는 실례들은 단편적인 사항이 아니라 폐상을 유추하는 하나의 상징으로 파악하여야 한다.

3. 12벽괘, 재윤지괘, 50연괘의 중심체계는 四時의 상에서 생긴 것이며, 인체는 소우주라는 관점에서 장부와 경락과도 연관된다. 12벽괘의 상은 12경락과 육장육부의 상과 일치하고, 재윤지괘가 추가된 14벽괘는 임독맥이 가미된 14경맥과 같다.

4. 12벽괘는 장부의 상으로 표현되고, 연괘는 장부의 기능변화를 표현했다고 볼 수 있다.

參 考 文 獻

1. 윤창렬, 醫易學,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원전학교실, 2002.
2. 주역계사전 강의록, 김용옥.
3. 아산학회편, 주역, 소강, 2002.
4. 박주병, 周易反正, 서문당, 2002.
5. 정약용, 周易答客難, 서울, 아름출판사, 1995.
6. 정약용, 周易四箋 卷一, 민창문화사, 1995.
7. 周易

8. 김인철, 다산의 주역해석체계, 경인문화사, 2003.